

21-11(통권 907호) 2021.04.23

경제주평

■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목 차

■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대외 경제 여건	2
3.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6
4. 시사점	11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외 2명

Executive Summary

□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021년 2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년 1분기 -1.3%, 2분기 -3.2%에서 3분기 2.1%, 4분기 1.2%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20년 4분기 현재 -1.2%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약한 경제 활동으로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경기 선행 지수가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 대외 경제 여건

2021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 등의 영향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는 투자 및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가계 지원 정책과 저축률 상승이 미래의 가계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백신효과가 유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하반기에는 소비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바이러스의 재확산 여부 및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 국가간 경기 흐름에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경기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외수 경기 개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유지로 인한 내수 기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백신 보급 지연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교역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만회할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코로나19 불확실성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갈등 심화 등과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국제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및 원유 공급 누적 등의 원인으로 2020년 국제 유가는 2019년 대비 대폭 하락한 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21년 세계 경기 반등에 따른 수요 증가,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유가는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산유국 간 공급량 조정 협력,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 기타 통화는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연준(Fed)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및 테이퍼링(tapering) 연기 등 양적완화 기조 유지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 및 엔화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따르는 경기 회복과 달러화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의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경기 회복과 달러화의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2021년도 한국 경제는 3% 중반대의 성장률로 반등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거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적응하고 있으며,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한다. 2021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1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소비 활동 제약이 일부 완화되고 소비심리 개선 및 기저효과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가계의 저축률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 확대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시장의 개선세 지연, 백신 보급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상존한다.

건설투자는 2021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공공인프라 등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선행지표 개선, 주택 수요 호조세 지속으로 인한 주택 투자 여건 개선으로 주택 부분에서 투자 확대 가능성도 상존한다. 다만, 2020년 건축 수주 확대가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3기 신도시 등이 지연되면 민간 주택 투자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세계 경제 회복과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로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0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코로나19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로 2021년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대면 시장 관련 수요의 확대로 반도체, 컴퓨터 등 IC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코로나19 변이 발생 등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 수출 및 운송서비스 흑자 확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지속된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요 회복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1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0년 고용 감소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 지속 및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 등이 고용시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 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종식 지연 등이 고용시장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 2021년 국내 경제 전망 >

구 분	2019년 연간	2020년			202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0	-0.7	-1.2	-1.0	3.3	3.6	3.5
민간소비 (%)	1.7	-4.4	-5.5	-4.9	2.4	4.6	3.5
건설투자 (%)	-2.5	1.7	-1.8	-0.1	-0.7	2.9	1.2
설비투자 (%)	-7.5	5.6	8.0	6.8	9.2	5.9	7.5
수출증가율 (%)	-10.4	-11.3	0.3	-5.5	23.2	13.6	18.1
소비자물가 (%)	0.4	0.6	0.5	0.5	1.5	1.9	1.7
실업률 (%)	3.8	4.3	3.6	4.0	4.6	3.5	4.0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단기적으로 경제 반등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성장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반등세 안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기업 역량 강화 등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 확대가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수출 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으로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여섯째, 물가상승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최근 국내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

- 2020년 하반기 들어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지속, 우려와는 달리 -1.0% 정도의 역성장에 그침

· 2020년 전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1.3%, 2분기 -3.2%로 크게 둔화했으나, 3분기 2.1%로 반등한 후 4분기에도 1.2%를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1.0%의 역성장에 그침

· 단, 전년동기대비로는 4분기까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약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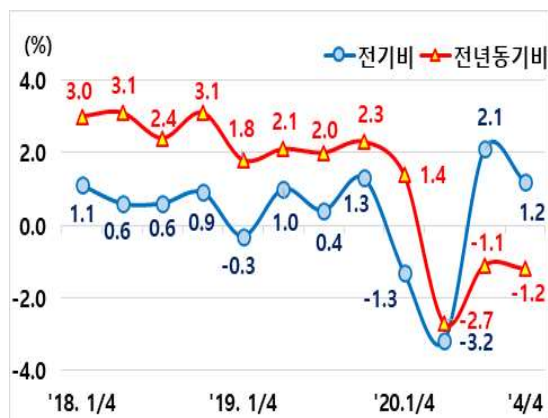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0.3%p로 플러스 전환된 후 4분기에는 동 1.5%p로 대폭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끔

- 경기 지수(동행, 선행)도 지난 2020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2020년 5월 97.2p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 2월에는 99.7p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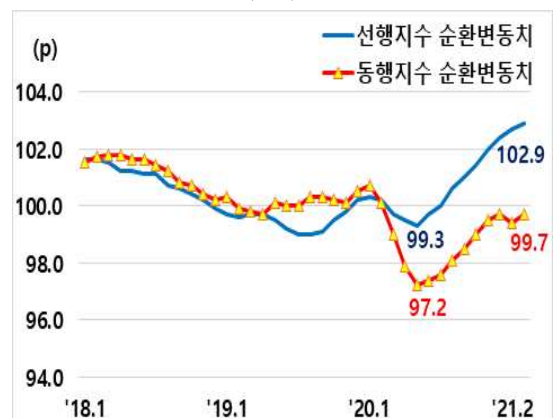
·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또한 같은 기간 99.3p로 저점을 형성한 후 102.9p까지 상승

<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2.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급반등 속 불확실성 상존

○ (현황)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경험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로 전환

- 선진국 경기 : 하반기 들어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보급 확산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로 전환. 단, 유로지역 일부 국가와 일본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
- 신흥국 경기 :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르는 내외수 동반 부진 현상을 경험했으나,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부터 완만한 속도로 회복

<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경제성장률	2.8	-	-	-	-	-3.3	-
선진국	1.6	-	-	-	-	-4.7	-
미국	2.2	-5.0	-31.4	33.4	4.1	-3.5	-
유로지역	1.3	-	-	-	-	-6.6	-
일본	1.4	-0.6	-8.2	5.0	-4.8	-9.9	-
신흥개도국	3.6	-	-	-	-	-2.2	-
중국	5.8	-6.8	3.2	4.9	6.5	2.3	18.3
인도	4.0	3.0	-24.4	-7.3	0.4	-8.0	-
브라질	1.4	-0.3	-10.9	-3.9	-1.1	-4.1	-
러시아	2.0	1.6	-8.0	-3.4	-	-3.1	-
ASEAN-5	4.8	-	-	-	-	-3.4	-
세계 교역증가율	0.9	-	-	-	-	-8.5	-

자료 1) 연간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년 4월.

2) 분기 :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존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중앙통계기구, 브라질 국립통계원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 1) 분기 성장률 :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과 유로존은 전기대비, 나머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기준.

○ (전망) 2021년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급반등 기대

- 선진국 경기 : 미국은 2020년 경기 후퇴 수준을 넘는 급반등이 기대되나,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과 일본의 경기 회복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전망
 -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유지,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에 따르는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급반등 기대
 - 유로지역 일부 국가들과 일본의 경기 회복 정도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코로나19 백신 보급 지연 등의 탓으로 2020년의 경기 후퇴 수준을 상회하지는 못할 전망
- 신흥국 경기 :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르는 외수 경기 개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유지로 인한 내수 기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뛰어넘는 급반등 기대
 - 미중 갈등 장기화 대응을 위한 내수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인 중국은 8%대 성장 복귀가 기대되나, 대내적으로는 민간부채 문제,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세계 교역 : 세계 경기 반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만회할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불확실성은 물론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등과 같은 하방 리스크 상존

<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2020년(E)			2021년(E)		
	2020년 10월 전망	2021년 1월 전망	2021년 4월 전망	2020년 10월 전망	2021년 1월 전망	2021년 4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4.4	-3.5	-3.3	5.2	5.5	6.0
선진국	-5.8	-4.9	-4.7	3.9	4.3	5.1
미국	-4.3	-3.4	-3.5	3.1	5.1	6.4
유로지역	-8.3	-7.2	-6.6	5.2	4.2	4.4
일본	-5.3	-5.1	-4.8	2.3	3.1	3.3
신흥개도국	-3.3	-2.4	-2.2	6.0	6.3	6.7
중국	1.9	2.3	2.3	8.2	8.1	8.4
인도	-10.3	-8.0	-8.0	8.8	11.5	12.5
브라질	-5.8	-4.5	-4.1	2.8	3.6	3.7
러시아	-4.1	-3.6	-3.1	2.8	3.0	3.8
ASEAN-5	-3.4	-3.7	-3.4	6.2	5.2	4.9
세계 교역증가율	-10.4	-9.6	-8.5	8.3	8.1	8.4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현황) 2021년 들어 국제 유가는 급등 후 완만한 상승세

- 2021년 들어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 등으로 지난 해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2021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완화 및 백신 보급 시작 등으로 세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원유 수요 확대됨에 따라 국제 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최근 국제유가는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제한적인 원유 증산 계획 발표 후 60달러 선에서 안정화

○ (전망) 2021년 국제 유가는 제한적이거나 상승 전망 세계 경기 반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이 예상되나, 산유국 간 공급량 조정 협력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

- 세계적 경기 반등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나, 산유국 간 공급량 조정 협력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단, 국제 유가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도 상존

< WTI 및 Dubai 유가 추이 및 전망 >

(달러/배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WTI	57.0	37.0	41.8	39.3	64.8	69.7	67.3
Dubai	63.5	40.7	43.8	42.3	66.5	70.6	68.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전망치는 IHS.

③ 주요국 환율

○ (현황) 달러화 약세 전환, 기타 통화 강세 전환

- 달러화 : 테이퍼링 연기 등 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경기 회복에 따르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 완화 등으로 달러화 약세 전환
 - 2021년 들어 3월 30일 93.3p까지 상승하던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4월 20일 기준 91.2p로 하락
- 유로화 및 엔화 :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강세 전환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3월말 0.85유로까지 상승하다 4월 20일 0.83유로로 하락, 달러 대비 엔화도 4월 1일 110.7엔에서 동 108.1엔으로 하락

○ (전망) 2021년 달러화 약보합, 유로화 및 엔화 강보합, 위안화 강세 전망

- 달러화 : 빠른 경기 회복으로 달러화 강세가 기대되지만, 연준(Fed)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및 테이퍼링(tapering) 연기 등 양적완화 기조 유지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완화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 유지
- 유로화 및 엔화 :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따르는 경기 회복과 달러화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 전망
- 위안화 :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의 경기 회복과 달러화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 예상

<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

구분	유로/달러(E)			엔/달러(E)			위안/달러(E)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4분기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4분기
평균	0.83	0.83	0.82	106.0	108.0	107.0	6.48	6.49	6.43
최고	-	0.86	0.88	-	112.0	112.0	-	6.65	6.83
최저	-	0.79	0.73	-	102.0	100.0	-	6.30	6.15

자료 : Bloomberg.

주 : 2021년 1분기는 1~3월 평균 자료

3. 2021년 한국 경제 전망

○ 2021년 한국 경제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 3% 중반대 성장률로 반등세가 확대될 전망

- 경제주체들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거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적응하고 있으며,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로 함
-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됨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0	-0.7	-1.2	-1.0	3.3	3.6	3.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세 전환 전망

-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소비 활동 제약이 일부 완화되고 소비심리 개선 및 기저효과 등에 따라 2021년 민간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가계의 저축률 증가로 인한 소비 여력 확대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노동시장의 개선세 지연, 백신 보급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상존
-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4%, 하반기 4.6%, 연간 3.5%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1.7	-4.4	-5.5	-4.9	2.4	4.6	3.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세 전환 전망

- 공공인프라 등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21년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또한,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 개선, 주택 수요 호조세 지속으로 인한 주택 투자 여건 개선으로 주택 부분에서 투자 확대 가능성도 상존
- 다만, 2020년 건축 수주 확대가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보상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등이 지연되면 민간주택 투자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
- 2021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0.7%, 하반기 2.9%, 연간 1.2%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2.5	1.7	-1.8	-0.1	-0.7	2.9	1.2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지속 전망

- 2021년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수요 확산, 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증가세 지속 전망
- 글로벌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강화로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
- 다만, 2020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코로나19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9.2%, 하반기 5.9%, 연간 7.5%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7.5	5.6	8.0	6.8	9.2	5.9	7.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입 : 큰 폭으로 반등

- 2021년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대외수요 확대 및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백신 도입,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로 세계 수출 시장의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비대면 시장 관련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반도체, 컴퓨터 등 IC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하여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2021년 수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자본재 수요 확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확대

- 2021년에는 상품 수출 및 운송서비스 흑자 확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가 202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394억 달러, 하반기 376억 달러, 연간 770억 달러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대외거래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597	190	562	753	394	376	770
무역수지(억 달러)	389	106	343	449	212	349	561
수출증가율(%)	-10.4	-11.3	0.3	-5.5	23.2	13.6	18.1
수입증가율(%)	-6.0	-9.0	-5.2	-7.1	19.7	15.3	17.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확대 전망

- 2019~2020년 지속된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요 회복 등으로 2021년 물가상승률은 확대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가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경기 회복 불확실성 잔존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 상존
-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5%, 하반기 1.9%, 연간 1.7%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0.6	0.5	0.5	1.5	1.9	1.7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실업률 유지, 신규취업자수 증가 전망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전년도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 지속 및 민간 부문 투자 개선세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종식 지연이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
- 2021년 실업률은 상반기 4.6%, 하반기 3.5%, 연간 4.0%,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4만 명, 하반기 35만 명, 연간 19만 명으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고용 지표 전망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3.8	4.3	3.6	4.0	4.6	3.5	4.0
취업자수 증감(만명)	30	-6	-38	-22	4	35	19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1.4)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0	-0.7	-1.2	-1.0	3.3	3.6	3.5
	민간소비 (%)	1.7	-4.4	-5.5	-4.9	2.4	4.6	3.5
	건설투자 (%)	-2.5	1.7	-1.8	-0.1	-0.7	2.9	1.2
	설비투자 (%)	-7.5	5.6	8.0	6.8	9.2	5.9	7.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597	190	562	753	394	376	770
	무역수지 (억 달러)	389	106	343	449	212	349	561
	수출증가율 (%)	-10.4	-11.3	0.3	-5.5	23.2	13.6	18.1
	수입증가율 (%)	-6.0	-9.0	-5.2	-7.1	19.7	15.3	17.4
소비자물가상승률 (%)		0.4	0.6	0.5	0.5	1.5	1.9	1.7
실업률 (%)		3.8	4.3	3.6	4.0	4.6	3.5	4.0
취업자수 증감(만 명)		30	-6	-38	-22	4	35	19

4. 시사점

- 2021년도 한국 경제는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는 하나,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거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적응하고 있으며, 2020년과 같은 급격한 활동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됨을 전제
- 단기적으로는 경기 반등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성장력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

첫째, 한국 경제의 반등세 안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업그레이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생존 지원이 가장 중요함
 -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성 공급 지속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 생산 및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함
 -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세 제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집행 대상, 규모 및 타이밍 등의 적절성 향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정 지출 구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 정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장 활력 제고 및 해외 시장 선점 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하며 규제개혁 방향은 사전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로 나아가야 함

- 제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산업 및 R&D 투자, 미래 지향적 산업 정책 추진, 혁신 추구 선호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시급함

둘째,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보급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소비 활동을 권장할 필요
 -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독려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비대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도 모색
 - 백신 보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 및 소비자심리를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소비 불평등 확대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 향후 민간소비 회복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책 마련이 중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발생을 대비하여 실업에 대한 지원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국민들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 보전도 중요하나,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를 통한 소득 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

셋째,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기업 역량 강화 등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함
 - 기업 투자심리 개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 노력이 요구됨
 -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 선도력을 갖추고, 친환경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함
- 또한, 기업들은 성과가 미진한 기존사업들의 수익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 능력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핵심 역량 강화 및 변화하는 환경 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함

넷째,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공사 조기 발주 확대가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공공사업 조기 발주를 확대하고, 국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낮춰야 함
- 민간 건설투자의 부진을 완화하고 부족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 사업 회복의 필요성 인식,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유인책 마련이 필요
- 건설기업들은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등 관련 신산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영효율성 제고와 위기 대처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함

다섯째,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수출 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으로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 2021년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정부의 수출 친화적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노력이 요구됨

- 2021년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국내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수출 친화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대내외 변화에 유연한 정책 능력이 필요함
- 또한, 미·중 분쟁 등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및 재화·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화 및 비대면 경제 확산 등 가속화되는 새로운 사회·문화·경제 트렌드 변화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투자 집중이 요구됨
 - 또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출품의 프리미엄을 통해 고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함

여섯째, 물가상승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물가 안정을 위해 공산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품 가격이 원가 상승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관리해야 함
 - 소비자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야 함
-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해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보할 필요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
 - 생활밀접 품목 중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 규모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고용시장 회복 정책을 강화하여 가계의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일급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활력 확보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에 주력하고,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또한 임시일용직 등 경기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
-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
 -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
 -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 유 란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류 승 회 연 구 원 (2072-6217, shryu@hri.co.kr)